



주민 스스로 개선한 농촌의 취약한 교통 여건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전라북도 완주군

단체명 금광골영농조합법인, 동상안전협동조합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주민 조직이 교통서비스를 제공

키워드 농촌 교통, 주민 주체 운영,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데 30분, 버스 기다리는 데 30분, 버스를 타고 면까지 가는 데 또 30분… 자가용이 없거나 고령으로 운전하기 힘든 농촌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거나 장을 보기 위해 면 소재지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횡성군의 북쪽 홍천군과 맞닿은 경계지역에 위치한 청일면 속실리는 기존에 마을을 지나는 버스노선을 운영하던 운수회사가 폐업하면서 주민들의 발이 끓여버렸다. 완주군 동상면 주민들은 겨울이 되면 버스 타는 것이 큰 걱정이었다. 눈이 조금만 와도 전주에서 오는 버스가 중간에서 돌아 가버려 마을에 버스가 다니지 않고 버스에 타고 있던 마을 주민들은 중간에 내려 마을에서 누군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와 완주군 동상면 주민들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직접 교통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버스, 어르신의 삶이 변하다

기존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게 된 청일면 속실리 주민들은 먼저 횡성군에 희망택시 도입을 건의하였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택시 요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강원도의 희망택시 사업을 군에서 검토하였지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업체나 개인택시가 없어 무산되고 말았다. 마침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가 진행 중이었다. 횡성군은 청일면 속실리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금광골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2017년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당리, 봉명리, 홍천군 청량리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횡성군을 넘어 같은 생활권에 있는 홍천군 주민들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금광골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두 명이 운전을 담당하고 11인승 스타렉스로 365일 휴일 없이 1일 9회 운행하고 있다. 버스 승차 정류장은 정해져 있지만 하차는 이용객들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하게 운행한다. 특히, 운전을 담당하는 조합원 두 명은 얼마 전 귀농한 주민으로 운전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친밀해지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마을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완주군 동상면 주민인 박성주 씨는 2015년 초 전라북도에서 DRT(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사업을 만들고 완주군에서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상안전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에 응모하였다. 평소 동상면을 지나는 버스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버스를



이용해 면내 마을 간 이동이 어렵다고 느낀 박성주 씨는 DRT 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상안전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이웃한 소양면, 상관면에서도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동상면에서 운행 중인 부름부릉 행복 콜버스는 30분 전에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17개 행정리, 동상면 전체를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 한다. 전라북도에서 구축한 부름부릉 행복 콜버스의 전산화된 운영시스템은 이용자, 콜센터, 운전자, 담당 공무원 모두 이용하고 있다. 전화로 예약할 수 있어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콜센터에서 보낸 운행 신청을 태블릿 PC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산화된 운행기록은 담당 공무원이 정산하는 데 이용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유류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청일면과 동상면 주민 모두 보건소, 농협, 면사무소 등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기존 대형 버스보다 타기가 편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걷는 거리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동안 버스 이용이 불편하여 외출하지 못하는 고령의 주민들도 사업 이후에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외출 횟수도 많이 늘었다. 주민들 가운데는 매일 보건소에 들러 약을 타고 가벼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완주 동상면에는 초등학교만 있어 전주나 인근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등교 시에는 통학버스나 통학택시를 이용하지만, 하교 시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면 소재지까지 와서 콜버스로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콜버스가 통학버스의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이용자가 늘기도 한다. 청일면에서는 봄철에 두릅과 산나물을 채취하여 중도매인이 오는 홍천군 서석면에서 팔기 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동상면은 여름철에 계곡에 쉬러 가거나 친척집 방문 등을 위해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다.

청일면 속실리는 그동안 교통이 불편하여 노년층 가운데 영화관을 못 가본 분들이 절반 이상, 기차를 본 적도 없는 분들이 2/3가 될 정도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문화 혜택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면에서 상영하는 영화도 단체로 관람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동상면에서는 여름이면 인근 전주나 다른 도시에서 학생들이 피서를 오는 데 콜버스를 이용해 계곡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지역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두 지역 모두 차량의 보험가입과 인건비 문제를 제시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수업체와 달리 공제조합 보험 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두 지역 모두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강조하였다. 청일면의 금광골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하여 공공인수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동상안전협동조합의 경우 도와 군의 지원을 받아 겨우 가입할 수 있었으며, 보험료가 600만 원에 가까워 사업비의 상당한 비율이 보험료에 들어가고 있다. 청일면의 금광골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운전자의 급여로 일 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상안전협동조합에서는 운전자의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고 군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제시하였다.

주민 운영과 행정 지원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가운데 규모가 큰 업체는 2019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는다.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아 내년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대도시의 부족한 운전자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농어촌버스 운전자가 대도시로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버스 노선이 단축 및 폐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버스 공영제·준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의 교통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공공형택시 사업을 도시형 교통모델로 확대 개편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청일면과 동상면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의 원인은 농촌 지역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일면과 동상면은 기존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노선 주변의 마을 주민들의 이동, 면 소재지를 방문하는 마을 주민들의 이동을 주민 조직에서 운영하는 교통서비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일면의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경우 올해 76개 군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 청일면처럼 주민 조직이 운영 주체가 되어 소형 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은 극소수이다. 동산면처럼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도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년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부족한 운수업체가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일면과 동산면 사

례처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 주민들 또한 현재 우리 마을을 지나는 버스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